

원천으로 돌아가라 (Ad fontes !)

- 새 미사경본을 내면서 참고해야 할 원천(1) -

2017. 8. 27. 김학렬 약망 신부.

1.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학문을 활용하여 헬레니즘 문화에 적응하는 이방선교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방의 문화에 적응하여, 그 문화에 세례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겼다.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의 선교방식도 이와 같아서, 선유의 문화를 활용하는 적응주의를 채택하여, 성공을 거두었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성급한 후임자들과, 시기와 질투, 경쟁심과 서구우월주의로 무장한 여타 수도회들은 동양의 선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하고 예수회마저 해체시키고 말았다(1773).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채 서구우월주의의 잣대로 판단한 제사금령이 극단적 결과로 나타나, 동양의 천주교박해를 야기했다.

2.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원들은 적응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완벽한 미사경본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음차문자로 된 [미살제의]는 출판되어 사용되었으나, 중국어로 완전하게 번역된 [미살경전]은 교회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

여, 사용되지 못한 채 필사본만 전해지고 있다. 잠시 완역된 그 [미살경전]을 살펴보자면,

[미살경전]의 **미살차서(Ordo Missae)**에, **탁덕이** 제의를 입고

彌撒次序

제단에 국궁예배하고 이마로부터 성호를 그으며 명성으로 넘하

明聲

되, ‘인파덕륵 급비약 급사피리다삼다명자 아맹’ 한다. 합장하

因罷德肋及費畧及斯彼利多三多名者亞孟

고, ‘즉욕진천주대’(Introibo ad altare Dei) 하면 보(미사)가

即欲進天主臺

輔

‘낙아묘령천주’(Ad Deum qui laetificat juventutem meam)

樂我妙齡天主

하며 대답한다. 이는 [미살제의]와 같이 가차음이 아닌, 중국 본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된 완전한 중국어 미사경문이다.

3. 아직 완전히 정리된 글이 아니지만, 새 미사경본이 나오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급한 마음에, 먼저 라틴어를 음차한 중국어 미사경본인 [미살제의]를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완전히 중국어로 번역되어, 지금 중국인들이 사용하여도 되는 [미살경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살제의]를 살펴보면, 지금도 사제들이 미사 예절과 규정에 대하여, 유의하여 알아보고 참고해야 할 교회 전승이 많다.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미살제의].¹⁾
彌撒祭義

애유락(Giulio Aleni, 1582-1649, 艾儒略) 신부가 지은 [미살제의]에, 진주이신 천주께 바치는 대례가 **미살**이며, **살책** 이(Sacerdos)²⁾인 **탁덕**이 주제로서 회중을 대신하여 바치는 것이다.(미살제의권상, p. 1). 미사는 새벽부터 정오 시간 사이에 드리는데, **탁덕이** **조식 이전에** 드려야 한다. 만일 아침을 먹었다면 미사를 지낼 수 없다. 주제자는 필히 **종신수정**할 것을 서원해야 하며, **교화황**이나 **비사파**(포르투갈어bispo, 주교)나 **살책**이 **탁덕**이³⁾ 아니면 미사를 주례할 수 없다.

성당을 지은 후에는 **침례당법**에 따라서, **성당 안을 두 가**

1) 여기서는 애유락, 미살제의, 1849 중간, 사목 조방제 준의 책에서 인용한다. 이 책은 분명히 주문모 신부의 입국 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윤유일이 권일신과 이승훈의 1789년 편지를 가지고 북경에 갔을 때, 왕명을 받은 관리였던 오 요한은 북경에서 직접 세례를 받았고, 선교사를 초빙하였으며, 선교사가 사용할 미사도구 등의 물품이 왕의 짐짝 속에 들어 있었다. 구베아 주교의 편지와 정조실록 1790.3.3.에서 의주 부윤 이이상이 정사 이성원에게 보내는 왕의 (특별문서)諭書 참조>, 보미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황사영 등이 보미사 경문을 필사하여 한문 발음대로 응답하며 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본다. ; 미살제의 초입부에서 애유락은 이 책을 기록하기에 앞서, ‘교회 의 규범으로는 경서를 출판하기에 앞서 3번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이 출판허가 때문에, 미사경본과 성경이 이미 중국어로 다 번역되었어도, 출판하여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이 규정이 엄격하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말 미사경본 I-II가 1976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간행본으로 나왔다.; 달레중 308.- “이밖에 미사 경본과 성경과 다른 성물들도 받았사운데 그것들은 왕 요셉 선생을 통하여 받은 목록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其外經本書本及聖物 都依王先生照數帶去 惟望一路上及各處往來辦事之時) -이 다음 조선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서양인 신부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맞아들이겠고,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천주강생 1835년 1월 19일, 북경 남당에서 유(진길)오사정, 조가록, 김방제각등 재배.”; 루도 비코 불리오(리유사) 신부의 [미살경전] 5권도 있어(서양자, 청나라궁중의 선교사들, p. 282), 다음에서 다룰 것이다.

2) 미살제의 권하 목록, 18절 장제, 1에서는 **살책**이 탁덕이 먼저 성당에 들어오면서 미사를 준비한다.

3) 사자경문에 나오는 교화황, 비사파, 주교, 탁덕을 참고.;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은 이 내용도 읽고 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종신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유사성직제도**를 중시하였을 것이다.

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불가유2용). 당 밖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망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당의 최심처에는 필히 하나의 (제)대_臺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성상을 놓아야 한다.

촛불에 향랍을 사용하는 의미는 순결한 몸을 뜻하는 것으로서, 벌은 동신_{童身}으로 꽃을 찾기(동신채화_{童身採花}) 때문이다. 성작_{聖爵}은 제일품 제기로서 주석이나 동, 옥이나 나무가 아닌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8).

제5 품급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자의 품급을 말한다. 서(양)제국에서는 예로부터 국가의 규범이 있어, 주재국가 당사자의 3 종류를 두어, 하나는 교화하고, 둘째는 민사를 다루고, 세 번째는 사무_{司武}를 두어 대비한다. 그중에 천주를 대리하는 교화종_{教化宗} 주자가 있으니, -소위 비사파(bispo) 살책이(sacerdos) 탁덕인_{鐸德}데, 그 직무는 교를 행하고 전하는 것으로서, 불관불혼_{不官不婚}하여 전심으로 교회의 일을 돌보는 이들이다.

총 7품⁴⁾이 있는데, 초시_{初試}는 아사지아략(ostiarus,수문품_{阿斯地亞略})으로서 성당출입을 관리하는 품이다. 재시_{再試}에는 립다이_{勒多爾}

4)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2년부터 착의식,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신품으로 단순화 하였다.

(lectoratus, 강경품)직으로서 침례일에 공당에서 송경하는 일을 관리하고, 삼품은 **엑열이제사달**(exoricistatus, 구마품)직으로서 **驅逐 厲 惡** 4품은 **아각리다**(acolythatus, 시종품)으로서 **亞 各 理 多** 당중향촉을 관리하는데, 이상을 **소품**이라 하며 **1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으로 **발원견수정덕한** 이들이 **대품**을 받는데, 오시는 **제아각낙**(diaconatus, 부제품)으로서 **聖 匣 聖 爵** 성갑성작을 관리하며 미사때 고성으로 고경을 선포한다. 육시는 **척제아각** 낙(subdiaconatus, 차부제품)으로서 **講 道 解 經** 강도해경하면서 탁덕의 좌우에서 보좌한다. 7시는 **살책이**(sacerdos) **탁덕**이 되는 품으로서 미살대제를 드리며 야소를 대리하여 만민기도하고 죄를 사한다.(10).

비사파(bispo)는 탁덕 내에서 간선되어 **교화황**으로부터 **俾 斯 玻** 가작가위가권을 받는다. 그 위로 **아이제비사파**(archivescovo, **亞 爾 際 俾 斯 玻** 대주교)가 되고 또 **비리마사**(?)가 되고 **파득리아이**가 **罷 得 理 亞 爾 加** (patriarcha, 총대주교)가 된다. **교화황**지상들을 **가이지납이** **教 化 皇 之 相** **加 爾 地 納 耳** (cardinali, 추기경)라 한다. 각국의 사신 한 사람이 **라마국**에 **羅 瑪 國**

주재하여, 교회의 일을 본국에 전달한다. 성 박사백록(?)은 탁
博 斯 伯 祿
 덕에 대하여 말하기를, 순차품급은 교회가 탁하는 것으로서,
循 次 品 級 鐸
 천주의 배필(필)이요, 사피리다 삼다의 위로(래=칙)로서, 천주께
彌 勅
 서 만민을 긍련하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위 천주와 사람 사
矜 憐
 이에 개입하는 거간자인 것이다.⁵⁾ 마납기아(Malachia)는 탁덕
居 間 者 瑪 蠟 基 亞
 을 천주사령인 천신과 같다 하였고, 살락만(솔로몬)은 당하여지
天 主 使 令 天 神 撒 落 滿 當 下 汝 之
 령신이라 하였다.(10).
靈 神

제6 장복에서, 일용지복은 적합하지 않고, 제사에 맞는
章 服
 성.덕.상.의 복장을 논하고 있다. 천주강생 전에 천주당에서 탁
誠 德 像
 덕은 6개의 제복을 착용하였다고 고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의 제복도 6개의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천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신 날이 6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1은 아미다
亞 彌 多
 (amictus, 개두포), 2는 아이말(alba)(12).이며, 3은 각이당
亞 耳 襪 各 爾 當
 (cingula, 띠), 4는 마니포라(manipula, 좌수대), 5는 (명알을
媽 尼 布 羅 左 手 帶 名 目

5) 정약중, 주교요지 하편 3장 에, '거간하야 그 두 사름을 화회를 붓치면.'하는 용어로 보아, 정약중이 미살제의를 읽고 이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본다.

6) 성교요지 제 1 장. -육일역작.

잘못 기재하여) 명왈 사다랄(stola, 즉영대)이라 하였고, 6은 관命曰 斯多辣 卽領帶 寬

장제복으로서 가소랄(casula) 즉채복야라 하였다. 이는 탁덕본
장 祭服 嘉蘇辣 卽彩服也

품의 옷이요, 오주야소께서 고금제일의 살책이 탁덕임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하였다.(13). 6가지 제복 외에 지금 **중화에서**
中華

는 교황께서 허용하시어 현색(검은색)관을 쓰는데, 위는 사각이
敎皇 玄色 冠

요 아래는 원형이다.7) (14상). 제의의 색깔로는 백. 홍. 현. 천
청. 록색이 있다. 백색은 희색이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여, 종
도와 치명자 성인 첨례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천주의 혈신임을
血臣

의미한다. 천청天靑은 하늘의 정색으로서 겨울과 봄에 많이 사용하

는데, 재계일과 고행하며 기구할 때 사용한다.8) 현색은 명막
冥漠

을 뜻한다. 록색은 생왕의 뜻을 지니며, 첨례일이 없을 때인

여름과 가을에 많이 사용한다.(15상).

제7 여미살례의에서, 미살자는 필히 보미살자가 있어야
與彌撒禮義 輔彌撒者

한다. 미사가 시작되면 꿇어 예배하고 성호를 긋는다.(개국궁궐
皆鞠躬跪

7) 기제상방하원-즉제건야. 이는 유생모로서 마태오 리치 신부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其制上方下圓卽祭巾也
8) 성호전집 제55권, 제밭, 천주실의발에서, ‘方巾靑袍。初守童身。不曾有婚’。이라 하였다. 명례방에서
집회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색깔로서, 사순절 시작인 재의 수요일 전례를 거행하였다고 본다.(cf.
벽위편권2, 을사추조적발, 입견즉거개분면청건).
入見則舉皆粉面靑巾

배 작성호(拜 作 聖號). 보미살자가 해죄경을 외우며, 아죄(내탓이오) 아죄(我 罪 我 罪)

를 삼차 외울때 **삼고심**(三 叩 心)을 하는데, 이는 통회진절의 표시이다.

탁덕이 제대 우편에서 **만일락경**(萬 日 略 經 **vangelo, 복음**)⁹⁾을 읽을 때 모

두 서서 성호를 긋는다. 성체와 성작을 거양할 때도 삼고심을

하고 **령성체**를 한다. 탁덕이 회중에게 십자축복을 그을 때 꿇

어서 (축복을)받고 나서 미사가 끝난다.(16상).

제8 여미살은보(與 彌 撒 恩 報)에서, 미사는 다른 예식과 비교할 수 없

으며, 오주야소강림과 같이 떡의 형상 안에 성체로 친히 계시
다.

제9 보미살경문 서지에서(p. 25하), **덕의O아덕옹**(德 依 亞 德 翁 **Ad**

Deum) 고의(古 依 **qui) 르제비가득**(勒 弟 非 加 得 **laetificat) 여교도등**(余 交 都 登 **juventutem)**

묵앙(默 盎 **meam).** 묵O고이아 도 액사 도사 복이저도탁 묵앙 과륙

묵 르포리사지 액득 과륙 지리사지사 인즉탁 동 아비리서득 묵

의니미고사 하며, 미사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미사 경문은 라틴어를 발음 그대로 **가차문자화** 한

것이였다.¹⁰⁾

9) 디아스의 성경직해와 판토타의 방자유전에서는 EUANGELHO를 액만일락이라고 하였다. 미살제의 하
권에서는 **만일락**(**Vangelo**)이라 하였다.

[미살제의 하권]은, 보미사자가 성경을 들고 앞에서 나가는 방식 등, 미사의 구체적인 행동방식과 의미를 제시한 **Rubrica(유의할 점)**와 같은 글이다.

미살제의 권하 목록, 장제 18절에서(1상), 2.천주께서 일체삼위 이심을 고백하면서 십자성호를 그리고, 3.회죄송과 해죄송을 바치며, 5.기리액 액룩의산을 9편 외우고, 6.양팔을 벌렸다 합장하면서 Gloria(액락리아, 역언 상증영복우천주 하즉안화우선인)를 노래하고, 7.전신을 대중에게 향하면서 Dominus vobiscum(탁미노사 아비사공)하며, 8.본일 침례지의 기도를 바치며, 9.안수경상송고경하고, 10.경대를 옮겨 분향하고 나서 송 만열략(Vangelo)경일단을 하며, 제10 이경대우 봉향 송만 열략경(역언 보희음시즉 천주강생소언소행 4대성인 마두 로가 마이가 약망 소기록자 송기1단 매일각이)을 읽는다.

미살제의 하권 중.

<결론>. [미살제의] 책은 분명히 주문모 신부의 입국 때 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보미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라

10) 앙베르 주교의 22번째 서한, 2011 수원교구, p. 343, 349.- ‘저의 두 번째 걱정거리는 매일 기도와 주일 미사경문의 조선말 번역입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시초에 조선신자들은 -한문으로 된 기도문을 그 뜻까지 번역하지는 않고, 뜻은 모르는 채 발음만 조선식으로 하여, 바쳤습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도(12년을 중국에 거주한 앙베르도) 책을 보지 않고 말만 들으면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신자들은 기도를 바칠 때 한자발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기도하였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틴어를 알지 못하는 황사영과 정약종 등이 보미사 경문을 필사하여 한문 발음대로 응답하며 복사를 하였을 것이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에서 미사의 주례자(7품성사), 제단, 제복의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금 **중화**에서는 **교황**께서 허용하셔서

현색(검정색) 관을 쓰는데, 위는 사각이요 아래는 원형이다. 제

의의 색깔로는 백. 홍. 현. 천청. 옥색이 있다. 백색은 희색이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여, 종도와 치명자 성인 첨례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천주의 **혈신**임을 의미한다. **천청**은 하늘의 정색으로

로서 겨울과 봄에 많이 사용하는데, 재계일과 고행하며 기구할 때 사용한다.(성호전집 제55권, 제발, 천주실의발에서, ‘方巾靑袍。初守童身。不曾有婚’。이라 하였다. 이는 명례방에서 집회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색깔로서, 명례방집회에서는 사순절 시작인 재의 수요일 전례를 거행하였다고 본다.(cf. 벽위편권2, 을사추조적발, 입견즉거개분면청건).

제10 보미살경문 서지에서, ‘**덕의**○**아덕**웅(Ad Deum) **고의**

(qui) **룩제비**가득(laetificat) **여교도**등(juventutem) **묵양**

(meam)’ 하여, 라틴어 미사경문을 한문으로 음차하여 기록하고 있다.(한국의 보미사자들이 한문을 그대로 읽으며, ‘아덕옹고의 특제비가득 여교도등 묵양’으로 기도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라틴어도 한문도 아닌 알지 못하는 기도문이 되었을 것이다.- 앵베르 주교의 22 편지 참조). 미살제의 끝.